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양경희¹ · 고가연² · 박순옥³ · 박선정⁴

¹원광보건대학교 · ²강릉영동대학교 · ^{3,4}여주대학교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bout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in Korea(1998~2018 year)

Kyung Hee, Yang¹ · Ga Yeon, Ko² · Soon Ok, Park³ · Sun Jung, Park⁴

¹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 ²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 ^{3,4}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for the past 20 years currently, we are trying to understand the research trends of communication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analyzing 57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for the last 20 years(1998~2018). **Results** : As a result of this study, 8(15%) from 2001 to 2010 and 49(85%) from 2011 to 2018 increased to 31(54.4%) from 2015 onwar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even clinical practice stress(8.8%), empathy, communication(8.8%), six critical thinking(7.5%) and six communication enhancement(7.5%). The quantitative study consisted of 49 subjects(86.0%), 35 subjects(61.4%) and 12 experimental subjects(21.0%). The qualitative research was 5 subjects(8.7%), focus group, concept analysis, and triangulation(1.8%). **Conclusion** : It is possible to elucidate the problem situation suitable for the clinical practice and to develop the problem solving strategy and method by using the descriptive, qualitative research, Q methodological research, and experimental study.

Key words : Nursing, Students, Research, Communication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환자와의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영역으로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치료적 관계성립에 있어서 필수

적이다[1].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사에게 간호실무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능력이며[1] 국내외 간호단체에서도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핵심역량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2]. 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기술이 대상자의 질병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질병의 경과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

간호사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호실무를 수행하며 환자 및 보건의료인과 신뢰를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복잡한 의료환경 내에서 갈등을 줄이기도 한다[4]. 최근 다학제적 보건의료팀의 협동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심부에 있는 간호사에게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5].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도 필수적이라 여겨지며[6], 간호대학생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인식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학부과정에서 이를 습득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간호학부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되는 중요한 전문직 능력으로[7],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추후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 해결능력을 보인다. 또한 최근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하는 간호대학이 늘고 있어 간호대학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소통 기술이나 임상실습 경험 시 대상자, 보호자, 상사 및 동료, 타 부서 직원 등의 다양한 사람들과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의사소통을 배우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8]. 간호대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도 의사소통이 요구되지만 임상실습을 시작할 때는 가시적인 기술이나 기구 등을 이용한 간호중재 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사정과 대인관계 및 대화를 통한 간호중재 역량도 향상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된 연구로는 감정조절, 공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간호전문직관, 스마트폰 중독자의식, 자아탄성력, 의사소통 불안, 대인관계 성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전략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1]. 그리고 자기노출과 합리적 정서훈련, 사티어 의사소통 교육 등의 특정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적용 후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으며[12,13], 표준화환자나 환자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방법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적

이라고 보고되었다[14,15]. 질적 연구방법으로 현상학적 연구를 한 연구에서는[16] 간호 대학생의 환자와의 의사소통 경험에서 의사소통에 관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확인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교과목에 대한 교육-학습 경험에서는[17]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요구가 절실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자는 국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동향 및 의사소통 관련 요인들에 대한 최신 경향들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 의사소통간호 연구의 미래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연구의 방향 모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20년간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연구를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목적은 국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연구에 관한 연구의 발표년도, 논문출처, 논문주제어, 논문설계, 대상자, 측정도구,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방법,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연구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최근 20년간(1998~2018년)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1998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관련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한국학술정보센터(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2.0), Dbpia 6.0, 한국의학논문(KoreaMed)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의사소통’ ‘간호대학생과 의사소통’을 주요어로 검색하였으며, 총 22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중복된 논문 168편과 논문제목에서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으나 대상자가 간호사가 아닌 논문 39편을 제외하였으며, 석사와 박사학위논문 60편도 제외하였다.

국내 간호학술지로서 대한간호학회지, Asian Nursing Research, 성인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간호교육학회지, 보건간호학회지, 직업건강학회지, 노인간호학회지, 임상간호연구지 등 간호 분야 학술지가 제공하는 자체 논문 검색 서비스를 추가로 검색하여 재확인하였다. 최종 확인되어진 논문은 57편이다.

3. 자료분석 방법

최근 20년간(1998~2018년)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수인 225편을 본 연구자들이 사전연구를 통해 마련한 일차적인 분석틀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분석시 명확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자료 분석을 완성하였다. 분석의 구성 틀은 논문의 일반적 특성인 연구발표년도, 게재된 학회지, 측정도구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설계 부분에서는 양적 연구, 중재 연구, 질적 연구, 기타 연구의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각 연구설계로 나눈 후 세부적으로 저자, 제목, 발표년도, 논문출처, 논문 설계, 대상자, 측정도구,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방법,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다시 한번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도별 연구 유형

2000년 이전에는 간호대학생에 대한 의사소통 연구

Table 1. Type of Research according to Publication Years
(n = 57)

Variable	Category	n	%
Published year	2000 <	0	0
	2001~2010	8	15
	2011~2018	49	85

Table 2. Type of Research according to Published Journal
(n = 57)

Variable	Category	n	%
Published journ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	24.5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	17.5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9	15.7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4	7.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4	7.0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3	5.2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	3.5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	3.5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	3.5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	1.8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	1.8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1	1.8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	1.8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	1.8
	Review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ial association	1	1.8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	1.8
		57	100

논문이 없었으며, 2001년~2010년 8편(15%), 2011년~2018년 49편(85%)으로 2001년 이후 간호대학생에 대한 의사소통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1년부터 논문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 이후 31편(54.4%)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Table 1).

의사소통과 관련된 논문의 저널별 분포는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4편(24.5%), 한국간호 교육학회지 10편(17.5%), 의료커뮤니케이션 9편(15.7%), 한국콘텐츠학회지 4편(7.0%), 기본간호학회지 4편(7.0%), 스트레스연구 3편(5.2%), 성인간호학회지 2편(5.2%), 동서간호학회지 2편(3.5%), 정신간호학회지 2편(3.5%), 대한간호학회지, 부모자녀건강학회지, 의료경영학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지, 디지털정책연구에 각각 1편이(1.8%) 게재되었다(Table 2).

2. 연구주제별 분석

연구주제 분석은 문헌에서 제시하는 제목과 주요어를 중심으로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별로 복수 기입되는 80개의 주제어를 도출하였다(Table 3).

주요주제어로는 임상실습스트레스 7개(8.8%), 공감, 소통 7개(8.8%), 비판적사고성향 6개(7.5%), 의사소통 증진 6개(7.5%), 자기효능감 4개(5.0%), 임상수행능력 4개(5.0%), 문제해결능력 4개(5.0%), 자아존중감 3개, 의사소통 태도 및 기술, 능력이 3개, 회복탄력성, 스마트폰 중독 3개, 표준화환자학습이 각 3개(3.70%), 간호 전문직관, 성격유형, 감성지능, 치료적 의사소통, 다문화 인식, 소통, 대인관계불안, 스트레스 대처전략, 정신, 사회건강상태, 생활스트레스, 의사소통교과목, 의사소통훈련, 학습만족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각 2개(2.50%), 학습유형, 학교적응이 각 1개(1.2%)의 분포로 나타났다(Table 3).

3. 연구설계별 분석

논문을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 49편(86.0%), 질적연구 5편(8.7%), 기타 3편(5.3%) 순으로 분포하였으며, 기타는 메타분석과 맥락적 분석으로 나타났다(Table 4).

1) 양적연구

양적연구는 비실험연구로 35편(61.4%)이 서술적조사연구로 가장 많았으며, 방법론적 연구가 2편(3.5%)으로 나타났고, 실험연구가 12편(21.0%)이 있었다(Table 4). 비실험연구 중 33편이 서술적조사연구로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2편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문화 간의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교과목에 대한 횡단적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의사소통능력, 자기

Table 3. Type of Research according to keyword (n = 57)

Variable	Category	n	%
	Clinical practice stress	7	8.6
	Empathy, communication	7	8.6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6	7.4
	Communication Enhancement Program	6	7.4
	Self-efficacy	4	4.9
	Clinical performance	4	4.9
	Problem-solving ability	4	4.9
	Self-esteem	3	3.7
	Communication attitude, skill, ability	3	3.7
	Resilience	3	3.7
	smartphone addiction	3	3.7
	Standardized patient learning	3	3.7
	Nursing specialty intuition	2	2.5
Published journal	Personality type	2	2.5
	Emotional intelligence	2	2.5
	Therapeutic communication	2	2.5
	Multicultural awareness, communication	2	2.5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2	2.5
	Stress coping strategy	2	2.5
	Mental, social health status	2	2.5
	Life stress	2	2.5
	Communication Course Analysis	2	2.5
	Communication training	2	2.5
	Learning satisfaction	2	2.5
	Communicating with Parents	2	2.5
	Type of learning	1	1.2
	Schooladaptation	1	1.2
		81	100.1

* Duplicate keyword

효능감, 비판적사고성향,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성격유형, 학습유형, 피로, 대인관계, 불안 등을 이용하였으며, 의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외, 의사소통태도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가 2편이 있었다(Table 5).

Table 4. Type of Research according to Design (n = 57)

Variable		Category	n	%
Research type		Qualitative	5	8,7
		Quantitative	49	86,0
		Others	3	5,3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Nonexperimental study	35	61,4
		Experimental study	12	21,0
		Methodological study	2	3,5
	Qualitative	Phenomenology	1	1,8
		Q-methodology	1	1,8
		Focus group interview	1	1,8
		Concept analysis	1	1,8
		Triangulation	1	1,8

실험연구는 12편(21.0%)으로 비동등성사전사후연구가 9편, 단일군사전사후 연구가 3편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참여자수는 각각 20~83명이었다. 주로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적용으로 의사소통훈련 3편,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이 3편, 교과 외 코칭 프로그램, 시뮬레이션교육, 정서훈련 프로그램이 각각 1편씩 3편이었으며, 공감프로그램과 분만역할극을 활용한 간호교육프로그램, 의사소통시뮬레이션프로그램을 적용한 단일군 사전사후연구가 3편으로 100% 유사실험연구로 나타났다(Table 5).

2) 질적연구

질적연구로는 의사소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방법, 의사소통 교과목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의사소통스타일에 대한 Q-방법론과 감성지능향상프로그램을 이용한 양적연구와 임상실습스트레스 감소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한 triangulation 연구,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분석이 각 1편(1.8%)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The Analysis of Research

(n = 57)

Category	Independent Variable	Participants	Design	Result
Non-Experimental research	Communication skills, self-efficacy, education needs	Nursing student 305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Life Stress Importance,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Nursing student 206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ursing student 349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pathy ability, nega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on type, coping stress	Nursing student Grade 3, 4 240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Multicultural awareness, empathy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between cultures are statistically correlated in static correlation, empathy ability and multicultural awareness
Descriptive research	Communication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tendency	Nursing student 180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The higher the number of functional communication and active coping with stress, the higher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Category	Independent Variable	Participants	Design	Result
Non-Experimental research	Literary literacy, resilience	Nursing student Grade 1, 2 180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critical thinking tendency and quantitative correlation, communication and critical thinking tendency and positive correlati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Nursing student 284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It is related to humanistic literacy and resilience, and resilience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communication
	Self-esteem,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Nursing student(female) 260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MBTI Personality Type	Nursing student 820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SNS addiction, mental, social health status	Nursing student 127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type, type of psychological function, psychological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linical performance, clinical practice stress	Nursing student Grade 2 253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on SNS addiction are the higher the mental health condition is, the higher the addiction
	Multicultural awareness, cultural sensitivity	Nursing student Grade 2 184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linical performa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Parent-child communication	Nursing student Grade 1, 2 353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Nursing student 106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Critical thinking	Nursing student 362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Critical thinking tendency affects active and supportive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Descriptive research	Self-esteem	Nursing student 163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Communication skill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smartphone addiction	Nursing student 172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lifestyle stress and family communication in smartphone addiction risk users and smartphone addiction and life stress family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kills	Nursing student 362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Communication skills, self-efficacy, and social skills
	Professional self concept	Nursing student 291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Communication anxiety and communication skills performance are inversely correlated

Category	Independent Variable	Participants	Design	Result
Descriptive research	Communication ability	Nursing student Grade 4 308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on skills	Nursing student 326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anxiety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Nursing student Grade 3, 4 198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Emotional labor,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and communication.
	Emotional labor	Nursing student 206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on self-efficacy, positive correlation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training needs	Nursing student Grade 4 122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Communicationability, majorsatisfaction, practicalpeerrelationship, sexinfluenceegoresili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Nursing student Grade 1, 2, 3, 4 184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The higher the self-awareness and the perception of others, the higher the communication ability Self-efficacy, communication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tendency are highly correlated with clinical performance
	Communication ability	Nursing student Grade 3, 4 274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Clinical performance,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Self-awareness, perception of others, communication skills	Nursing student Grade 3, 4 212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Self-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critical thinking tendency	Nursing student Grade 3, 4 448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Private self-consciousness,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unrest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anxiety
	Self-esteem, empathy	Nursing student 623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Communication ability i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communication anxiety,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Communication ability	Nursing student 124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Inverse correlation between fatigue and communication ability and inverse correlation, net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abili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critical thinking tendency	Nursing student Grade 1, 2, 3 565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ability have a high positive correlation
	Self-consciousness and communication anxiety	Nursing student(femail) 27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Communication with wealth, emotional expressions of Bong, and gender identity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Category	Independent Variable	Participants	Design	Result
Descriptive research	fatigue	Nursing student Grade 3 149 persons	Correlational survey design	Diabetes education performance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ability and learning satisfaction
	Learning type	Nursing student 330 persons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Self-esteem, interpersonal and 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are positively related to cultural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Nationwide four-year nursing universities 48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Knowledge area (communication theory, characteristics of human relationship, understanding importance and building philosophical basis), technology (application of nursing communication), attitude (building human relationship for nursing)
Experimental research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Control 41 experimental 50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Extracurricular Coaching Program	Control 27 experimental 29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and leadership
	Empathy Program	Experimental 79	On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Positive effect on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professional self concept
	Communication simulation program	Experimental 35	On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Communication skills scores do not change, stereotypical thinking affects their ability to perform creative and open communication
	Nursing education using role role play	Experimental 78	On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Control 43 experimental 83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training group program	Control 20 experimental 20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nhancement of human relations ability
	Simulation training for elderly with cognitive impairment	Control 37 experimental 32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Self-Exposure Rational Emotion Training	Control 60 experimental 60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Communication skills, stress coping style, self-efficacy improvement
	Standardization patient simulation training training	Control 39 experimental 36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Attractiveness training, communication skills, learning motivation
	Standardization patient simulation training training	Control 48 experimental 48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Clinical performance, communication ability,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ability
	Standardization Patient Health Assessment Practice Training	Control 44 experimental 44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Improve nurs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Category	Independent Variable	Participants	Design	Result
Methodological study	Communication attitude measurement tool	Nursing student 401 person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19 items categorized by positive attitude and negative attitude
	Communication skills tools	Nursing student Grade 4 154 persons	Methodological research	Fourteen sub-factors of Health Communication Assessment Tool (HCAT)
Others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	Mental nursing practice 50 students	Contextual analysis	The use of verbal communication skills at a rate of 26: 1 more than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capacity building program	Clinical trial research 20 cases	Meta-analysis	Communication skills, self-efficacy, interpersonal skills
	Simulation based practice	Nursing student Grade 3 51 persons		Four of these seven items in the communication area and three items in the interpersonal items
Qualitative research	Communication experience	Nursing student Grade 3 12 persons	Phenomenology	Two categories (topics on communication experiences, subjects on communication that interfere with communication)
	Communication Course	Nursing student Grade 3, 4 8 persons	Focus group	Five categories (interesting courses, inconsistencies in theory and practic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demands for innovative pedagogy, and a desire for fluent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style	Freshman at nursing university 50 persons	Q Methodology	Four types (open interchange promotion type, others care listening type, critically sensitive type, AC avoidance type)
	Emotion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Control 20 experimental 20	Triangulation	Quantitative result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s, resili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clinical competence were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rapeutic communication	Related Document 35 pieces	Concept analysis	Qualitative results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e stress reduction)

IV. 논 의

간호대학생 의사소통 연구의 연대별 추이는 2011년에서 2018년 57편 중 49편으로 2001년에서 2010년까지 8편의 논문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간호학계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전에 한편도 없던 논문이 2000년대 이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과 관련

된 논문의 수가 발견되고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어 간호계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첫 번째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로는 2015년부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과 관련 논문이 투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간호학과 관련된 학회지 보다는 다학제간 학회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학제간 투고된 논문이 30편(52.6%)으로 확인되어 다양한 학회지의 발달과 더불어 모든 분야별 간호

연구별 투고가 활성화되면서 확인되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논문의 투고 시 등재지로 선정된 학술지에 게재하는 이점 때문에 간호학 분야 학회지 외에 논문을 다수 투고한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연구주제어는 임상실습스트레스, 공감,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존중감이 주요어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 대상자가 간호학생임에 따라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문제가 가장 우선 시 됨을 알 수 있다.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중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의사소통과 라포(rapport)형성의 어려움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들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의사소통과 관련되었다는 연구가 확인되어 추후 연구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로 연구설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양적 연구는 전체 57편의 논문 중 49편으로 가장 높은 비율(86.1%)을 차지하였다. 중재연구, 질적연구, Q방법론이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연구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양적연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양적연구인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가 많은 것은 의사소통과 관련되어진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각 변수와 의사소통과 경로분석, 구조모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양적연구의 분석결과 자가보고에 의한 질문지 조사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으며 연구분석방법은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이 많이 이루어졌고 통계기법으로 기술통계, t-test와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방법, Pearson's correlation,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이용되었는데 이는 서술적조사연구의 연구설계방법에 적절한 분석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도구는 외국에서 개발한 도구를 우리나라에서 번역하여 쓰는 도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문화

의 특수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새로운 도구개발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중재연구는 전체 57편의 논문 중 12편(21%)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중재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재 연구의 설계유형을 분석한 결과, 100%가 유사실험연구이고 순수실험연구는 단 1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근거중심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를 제공하는 순수실험연구 즉,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의 수행이 증가하고 있고, 복잡한 간호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체계적인 RCT의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다[18]. 그러나 현재까지 의사소통과 관련된 중재연구에서는 중재 프로그램이 연구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설계적인 측면에서 모든 설계가 유사 실험설계이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추후에 좀 더 확대되어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순수실험연구가 확인되지 않아 순수실험연구의 어려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연구현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순수실험연구를 고려하여 수행하도록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1학년에서 4학년을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많아 간호대학생의 전 학년에 대한 의사소통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사소통 기술은 임상실습 시 역력히 필요성을 보이지만, 1, 2학년 때부터 사전에 습득해야만 임상실습을 할 때 적용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Lee 등[19]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타 간호 대학생들과의 관계, 간호사와의 상호관계,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상호작용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더구나 보건의료현장에서 대상을 간호하는데 있어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에 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20].

의사소통 기술은 몸에 익혀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오랜 기간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간호학생 자신이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21]. 이에 간호학생들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과 개별적인 접근을 통한 질적연구과정을 통해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생각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질적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적절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다면 질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해 각 부서별로 심층면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면 의사소통의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질적연구는 전체연구의 5%밖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과 Q방법론이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질적연구가 증가되고 있고 연구자들이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질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간호학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임상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경험에 근거하고 Q방법론으로 대상자의 주관성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연구윤리위원회인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통해 기관심의 절차를 거친 연구가 미비하게 확인되어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어렵다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 윤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IRB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20년간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총 57편의 논문들을 분석하여 현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대상 연구들은 주로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스트레스, 공감, 비판적사고성향, 자아존중감을 주제로 연구되었으며, 연구설계는 서술적조사연구와 현상학적방법, 포커스그룹, Q-방법을 사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은 환자, 타 간호학생 및 간호사 외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재방법에 대한 연구는 다소 적어서 의사소통 중심의 개념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고 중재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후속되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증진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어진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과 평가도구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대상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중재방법들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며, 순수실험연구가 더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가 충족되어 연구윤리위원회인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의 승인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술적연구와 질적연구 및 Q방법론적 연구를 통해 상호 보완하는 전력을 활용한다면, 임상현장에 적합한 문제 상황이 명확하게 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전략과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Boykins AD. Core communication competencies in patient-centered care. The ABNF Journal. 2012;20(2): 40-45.
2. Son H, Kim HS, Koh M, Yu SJ. Analysis of the communication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of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 426-434.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424
3. Caris-Verhallen W, Timmermans L, Dulmen S. Observation of nurse-patient interaction in oncology: Review of assessment instrument. Patient Education

- & Counseling. 2004;54(3):307-320.
4. Kim M. Development of objectives in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 competenc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6;36(2): 389-402.
5. Eo YS, Lee KR, Choi SS. Ego-identity, self-efficacy and the independence of his parents with college and adjustment in freshman of nursing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1;13(6):3073-3084.
6. Park E, Ryu H. A study on developing strategies for expanding the roles of public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2;31(4):712-721.
7. Baghcheghi N, Koohestani HR, Rezaei K. A comparison of the cooperative learning and traditional learning method in theory classes on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 with patients at clinical settings. *Nurse Education Today*. 2011;31(8):877-882.
8. Park JH, Kim TH. A study on sexual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focus on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with parents and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05;10(1):75-101.
9. Lee GY. *Communication in Nursing*. sinkwoung-sa;2011.
10. Han KS, Park YJ, Kim KM, Oh YJ, Jin JH, Kang HC. Communication style, self 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and ways of cop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8;17(1):28-34.
11. Becker KL, Rose LE, Berg JB, Park H, Shatzer JH. The effectiveness of standardized pati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6;45(4):103-111.
12. Chaffee M. Health communications: Nursing education for increased visibility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000;16(1):31-38.
13. Chant S, Jenkinson T, Randle J, Russell G. Communication skills: Some problems in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2;11:12-21.
14. Hofler LD. Nursing education and transition to the work environment : A synthesis of National repor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8;47(1):5-12.
15. McCaffrey R, Hayes RM, Cassellm A, Miller-Reyes, Donaldson A, Ferrell C. The effect of an educational programme on attitudes of nurses and medical residents towards the benefits of positiv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1;16.
<https://doi.org/10.1111/j.1365-2648.2011.05736.x>
16. Yun SH, Lee JS.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experience with pati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3;8(2):129-142.
17. Kim CS, Hong JJ.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in communications course.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2014;8(14):19-29
18. Richards DA, Hamers JP. RCTs in complex nursing interventions and laboratory experi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09;46(4): 588-592. DOI:<https://doi.org/10.1016/j.ijnurstu.2008.12.002>
19. Lee JS, Park SM, Chun SS, Choi JS, Kim MO, Kim R, et al. Communication Eexperiences between psychiatric nurses and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2;11(4):596-608.
20. Yun S, Lee J. Concept analysis to therapeutic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4;9(1): 51-59.
21. Park YS, Im SB, Kim HS. The effects of reinforced self-understanding in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9;18(3):361-368.